

우 리 어 버 이

작사 박경심
작곡 안정호

정서적으로 (♩=64)

1. 정-깊은그 미소 에 눈-굽-은 젖-고
 따-뜻한그 음성 에 따-음-은 젖-네
 꿈-에-도 - 믿-교사는 운-명의-하-늘
 자-애-론 - 원-수님은 우-리-어-버-이

3. 해빛을 향해 펼친 천만잎새처럼
인민은 정에 끌려 그이 따르네
마음속 그늘없이 비치는 태양
자애론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3. 사랑하는 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그 헌신이 그이의 행복
세상에 오직 한분 민족의 은인
자애론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개서한을 보내주신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선거자결의모임 전체 선거구들에서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주신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결의모임이 21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선거구들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모임장소들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불패의 혁명전진 만세!》, 《모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모임들은 《우리는 당선박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이 전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렸다.

모임들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공개서한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국가사회제도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을 바라는 사승고한 뜻이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펼쳐진 혼연일체의 화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만을 펼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공개서한을 한없이 기쁨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승리의 신심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리며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파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들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뚜렷이 밝히시어 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필승의 보증을 안겨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전성기를 열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렬히 옹호하고 결사판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렬히 옹호하고 결사판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대오가 명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전우들로, 동지부대로 비상히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여주시것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특전이며 최대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선군명장의 선군아래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순결명예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이 펼쳐준 온대내 설계도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창조와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룩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다재다능한 명도신력, 고매한 인격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의 밝은 앞날이 있고

지난 2월 16일이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뜻깊은 평명성절 아침 평양애육원과 평양시육아원에서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시신 특식상차림표대로 이롭고 맛있는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좋아라 어쩔줄 몰라하는 원아들, 그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바라보며 울려내리는 눈물을 감잡지 못하는 교양원들과 보육원들, 일꾼들...
 얼마전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오시어 전설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도 부족하신듯, 아더우신듯 찾아오셨던 원아들을 한가득 보내주시어 명절을 더욱 즐겁게 쇠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니 그 누구보다 바쁘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2월에 수놓으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송고한 세계를 절감할수록 우리 원아들이 때없이 불러보곤 하는 《아버지!》라는 부름의 의미가 더욱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 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다. 혁명의 전도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새 세대들이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어떻게 되어 아치는 자기들이

아 버 지 원 수 님 고 맵 습 니 다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넘치는 평양애육원과 평양시육아원을 돌아보고

자애로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잘 알지 못하는 철부지아이들이 절세의 위인의 축복에 떠날때 행복의 절정에 오르는것인가. 조국을 위하여 바칠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당은 왜 그토록 애없는 사랑과 정을 기울이고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애육원과 평양시육아원을 찾오셨던 그날을 잊을수 없다.
 주제 103(2014)년 2월 3일.
 경애하는 그이를 너무나 뜻밖에 모시게 된 애육원의 일꾼들과 교양원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애육원에까지 찾아오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었던 영광의 순간순간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고 하면서 들려주는 이력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물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애육원의 일꾼들이 들려주는 인사를 받으시고 중앙현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영상작품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아이들의 철없는 응석을 모두 받아주시며 온갖 피로가 다 풀리는듯 햇빛같은 웃음을 짓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전하여주는 화폭을 오로도로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차넘친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한평생 후대들에게 애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뜨거운 추억이었으리라.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키우고 돌보아주자, 이것이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후대판이었다.
 화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 사나운 눈보라 휘몰아치는 마안산에서 험let고 굶주리는 아동단원들을 위해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사연같은 돈 20원을 서슴없이 내놓으셨고 오 유격군지들이 애동단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여 바치신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었었는가.
 나라가 고난을 겪던 어느때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육아원에 선타관과 식료품을 정량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셨었다. 일꾼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전달수가 없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즉시로 도돌에 있는 모든 육아원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시고 얼마후부터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후방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계획된 주식물과 부식물, 피복류 등 필요한 물자와 자재를 무조건 보강해주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차그머니 그늘이라도 질레라 그 처럼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불행중야로 이어가시는 현지에서도 길에서 아이들을 맡아키우는 사람들을 온 나라가 다 아는 애육자로 값높이 대우받으시였다.
 만포방사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신 순간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고있는 녀성지배인의 소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였다.
 바쁘신 일정도 미루어가지면서 부모없이 자란 청년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부역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생활환경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녀성지배인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량부모 다 잃은 아이들에게는 양부모를 데리고 오게 하신데 이 자신의 격정을 들여주셨다고, 고맙다고 뜨거운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때 우리

조국명에서는 온 나라가 허허떠를 줄라매야 했던 그때에도 햇빛같은 교정에서 배운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의 《왕자》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감동같은 화폭이 펼쳐졌다. 뜻깊은 명절이면 사랑의 교부과 당과류들이 아이들의 가슴이 넘쳐나기 가득 안겨지고 파인애플이면 갖가지 과일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희한한 현실도 펼쳐지게 되었다.
 력사를 이룸을 남긴 위인들에 대한 일화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희한한 현실도 펼쳐지게 되었다.
 하지만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보시고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불태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같은 명도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친목으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며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수많은 추억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층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로 귀여운 아이들이 저마다 달려가 안기며 《아버지! —》 하고 목청껏 터치였다.
 애들의 불을 따듯이 쓰다듬어 주시며 몇 살이냐, 아픈데는 없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 빛이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아이들이 목소리를 합쳐 부른 노래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는 첩따고 고운 웃도 입혀주시고 맛있는 사랑, 피자, 과일, 물고기와 꿀도 보내주시는 그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웨침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었다고 하면서 교양원 김수향동무는 이렇게 목메어 말하였다.
 《이애들은 결코 부모없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천만부모의 정과 사랑을 모두 합친것보다



더 크고 따사로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아버지로서 모신 행복들이들입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저저마다 자랑하며 정히 개어놓았던 웃음을 꺼내보이는 총각애들, 아롱다롱 고운 머리띠와 코스모스머리핀칠을 꾸민 아이들이 방실방실 웃음을 치러 애들, 정말 이들모두는 이 세상 제일가는 행복들이들이었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여운 아이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시였으며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육 및 교양조건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창고에 그득하게 쌓아놓은 간식들을 보시며 애육원의 일꾼에게 만족한다고 다짐하게 물어도 주시고 평양시육아원의 부식물들을 바라보시며 만사물이 놓이지는듯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어디 그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잡자는 시간까지도 헤아려주시고 방안은 도를 잘 보장해주어 원아들이 겨울 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는 평양시육아원의 햇빛같은 방실들에도 어려 없었다.
 애기방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잡자는 애기들의 모양을 웃음속에 보시면서 태어난지 얼마나 되었는가를 물어주시고 놀이장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시고는 말도 시켜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세 쌍둥이들과 마주앉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세 쌍둥이를 데려왔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이들의 생김새를 가늠해 타이르기도 하시며 친아버지의 정을 가득 안겨주시였다.
 누구나 출다, 출다 하는 한겨울의 추위가 아기와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스며들세라 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육원들과 일꾼들모두가 눈시울을 적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

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당력사에서 전례없이 큰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당사상건설에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지금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사상건설을 지켜본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당사상사업의 일대 전성기로 만들어 나갈 줄라는 결의를 넘쳐 있습니다.

동지들!

튜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시련을 헤치며 승승장구해온 우리 당의 자랑찬 투쟁행로에는 언제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우리 당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건설하며 당사상사업을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해나가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신성한 혁명사상발전의 100년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자주시대를 이끌어올 지도사상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조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적 사상체계,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오써 우리 당은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만 해나가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뚜렷히 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인무, 총적방향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사상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휘황히 밝혀 주시고 몸소 전투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주의 과학에 대하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당사상사업을 개선해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사상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였습니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의 기치밑에 전진하여온 지난 40년의 력사는 당사상사업의 시대적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당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사업의 고귀한 재부가 마련된 자랑스러운 년대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당사상사업의 내용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온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일 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수령에 대한 총일성을 키워는데 지향시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으로써 우리 당사상사업이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당사상부문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 총일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전례없는 폭과 심도에서 일관성있게 벌려왔습니다.

혁명대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져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발휘된 총일성의 산모범을 따라배우며 당과

수령에 대한 총일성을 신념화, 망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상부문에서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1990년대에 혁명의 수뇌부결사용위를 당사상사업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천만군민을 당과 수령을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민족의 대국상의 나날들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안악이 떨쳐나선 현실은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었습니다.

생산지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화신선진, 화신선동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강계정신과 회천승진운동, 군중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습니

다. 강화력과 호소성이 큰 기사, 편집물들과 노래와 영화, 가극, 연극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예술선진대들과 화예출신운동, 군중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습니

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전대미문의 집요한 경제봉쇄속에서도 새 세계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사회주의의 선진성이 펼쳐졌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습니

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40년간의 당사상건설력사는 사상의 위업을 기쁘게 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혁명적당의 위업을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승승장구한다게 철통같이 뚫혀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정경에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림없이 계승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경에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헌동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의 총적방향과 임무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시기를 당사상부문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총정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시어 수령영생위업을 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었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판공파를 단호히 적발분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속에 당과 혁명대오가 조직적전진으로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는 근본반보기 마련되었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틀어쥐고나가는 100%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교양사업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온 나라에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김일성주의연구실을 비롯한 수많은 교양사업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어 그를 통한 교양방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셨습니다.

당사상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새 세계에는 618건설돌격대를 조직하여 백두산일영과 삼지연지구를 혁명의 성지답게 전면시진것을 비롯하여 유일사상교양사업과 연혁소개설, 계급교양관을 꾸리고 교양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학, 보도혁명, 출판혁명과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은 라오르의 속에서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약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당당선전원을 비롯한 수많은 초급선진일군들, 혁명사적부, 출판보도, 문학예술부 일군들의 대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구한 나날 심혈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당사상사업체제와 방법, 튼튼한 력량과 도래는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의 고귀한 유산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산전선동의 전투적위력을 높이 발휘한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사업을 앞세워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모든 선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당의 경제정책선진과 경제선동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 나가도록 하시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은 속도전, 사상전을 벌리며 대당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전진, 집중공세, 침투전의 방법으로 경제정책선진과 경제선동을 드물게 벌려 1970년대와 80년대를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생산지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화신선진, 화신선동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강계정신과 회천승진운동, 군중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습니

다. 강화력과 호소성이 큰 기사, 편집물들과 노래와 영화, 가극, 연극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예술선진대들과 화예출신운동, 군중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습니

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전대미문의 집요한 경제봉쇄속에서도 새 세계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사회주의의 선진성이 펼쳐졌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습니

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40년간의 당사상건설력사는 사상의 위업을 기쁘게 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혁명적당의 위업을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승승장구한다게 철통같이 뚫혀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정경에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림없이 계승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경에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헌동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의 총적방향과 임무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시기를 당사상부문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총정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시어 수령영생위업을 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었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판공파를 단호히 적발분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속에 당과 혁명대오가 조직적전진으로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는 근본반보기 마련되었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틀어쥐고나가는 100%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교양사업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온 나라에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김일성주의연구실을 비롯한 수많은 교양사업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어 그를 통한 교양방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셨습니다.

당사상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새 세계에는 618건설돌격대를 조직하여 백두산일영과 삼지연지구를 혁명의 성지답게 전면시진것을 비롯하여 유일사상교양사업과 연혁소개설, 계급교양관을 꾸리고 교양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학, 보도혁명, 출판혁명과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은 라오르의 속에서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약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당당선전원을 비롯한 수많은 초급선진일군들, 혁명사적부, 출판보도, 문학예술부 일군들의 대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구한 나날 심혈을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당사상사업체제와 방법, 튼튼한 력량과 도래는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의 고귀한 유산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당사상사업 최대의 영애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활적으로, 감정적으로서도 파고들어 진행되는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도, 《조국찬가》, 《강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와 같은 국보적인 노래에도 당사상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사업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에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깃들었습니다.

역사적인 호소로 천만군민을 《마시명속도》창조로 불러일으킨 경에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최한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교육과 문학예술, 체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상일군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위한 성과속에는 수많은 당조직들과 사상일군들의 고귀한 투쟁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었습니다.

전당의 선진일군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전국각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모든 열정을 바치시며 수령영생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국방과학을 비롯한 과학연구부문의 당조직들과 선진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하고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시키고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시어 김일성, 김정일호전의 국력을 떨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린 생각과 라남, 락원과 강선, 함남의 당조직들과 선진일군들,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미륵과 동봉을 비롯한 농촌정리부문의 수많은 당조직들과 선진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겼습니다.

오랜 기간 변함없이 당사상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는 일군들과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묵묵히 일해나가고있는 혁명사적부문의 강사, 학술연구원들, 출판보도부문의 강사, 편집원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 그리고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들을 비롯한 초급선진일군들은 우리 당사상건설을 떠맡는 튼튼한 주춧돌입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에 무한히 총일하고 높은 실력과 고결한 품모를 지닌 이런 사상일군들의 대대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당의 사상일군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특강적인 사상중시로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당사상사업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에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애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당앞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상부문에서는 현실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진행하지 못하고 당이 의도하고 현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도높이 일관성있게 벌리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당사상건설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선진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받시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상부문에서는 당의 응대할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진선동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지 못하고있으며 경제-강성국건설을 저해하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하게 틀어쥐고나가고 있습니다.

당선진일군들이 당의 기초총성시 일군들처럼 항일유격대식으로 공작과 농촌들에 나가 기쁨배, 흥배를 맡고서 로동자, 농민들에게 당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선진하던 기풍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의 근본원인은 당사상사업의 직접담당자이며 주인인 사상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실현을 위한 역사적전진을 개시하던 그때처럼 당사상부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색을 세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한탄하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에서 교훈을 찾고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도록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역사적전진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상사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사상사업명도, 경제선동공세를 틀어쥐고 새로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며 당선선동사업의 귀중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당사상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방침들의 진수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당사사업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항구적으로 관철해나가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당사상사업원칙과 체계를 철저히 고수하며 선진선동방법을 철두철미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당사상부문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서 전당의 모범이 되여야 하였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으며 원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원수님처럼 혁명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나가는 총정의 일관단심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차넘치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당조직들과 사상일군들은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을 원리적으로, 실천과 결부하여 리는 절박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도높이 일관성있게 벌리지 못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원리교양을 심도 있게 진행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진지하게 해나감으로써 선진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습니다.

사상일군들은 형식주의와 도식주의의 낡은 틀을 극복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운명과 판별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수확을 거두는 창조형의 일군, 민심을 알고 사람들의 사상감정과의 시련을 능란하게 벌러나가는 군중사업의 기사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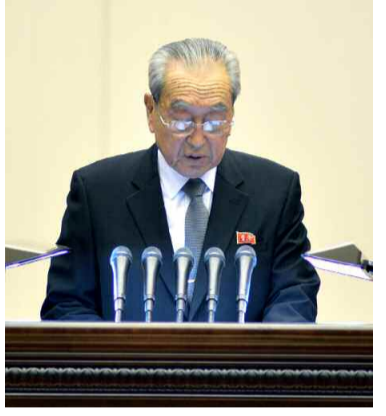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여 주신 숭고한 당사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품을 따라배워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다방면적인 지식,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그 어떤 정황에서도 대중을 감화시키고 발동할 줄 아는 실력,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책임일군들은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사상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오며 전당이 선진원, 선동원이 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하였습니다.

당사상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큼니다.

모든 당사상일군들은 혁명의 사상건설자가 되며 정통한 조국도, 인민의 꿈도 있을수 없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백두산대국의 사상교양을 난공불락으로 다져나가야 하였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유일사상교양, 총일성교양을 심화시키는 결과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은 혁명운동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8차 당대회에 참가한 사상일군들의 열렬한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토론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겠다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일환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전방의 앞장에 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도덕리심을 시안의 사적지를 비롯한 시안의 혁명사적지, 사적관들을 개선하고 혁명사적물을 보존하는 사업도 당조직들을 발동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을 앞세워 훌륭히 완성하였습니다.

수도의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의 사업을 통하여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로 사고하고 실천해나감도 대중을 교양하고 분발시켜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로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체혁명위업제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맞게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사상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습니다.

최근년간 수도에서 진행되는 중요정치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령도자의 단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시대상업에 비추어볼 때 시당위원회사업에서는 결합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체혁명위업제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맞게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사상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당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계속완성해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나타난 결합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는 사외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도의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당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계속완성해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모든 김일성 종합대학에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과 만경대혁명사적지, 어은혁명사적지, 전술혁명사적지, 사적관들을 개선하고 혁명사적물을 보존하는 사업도 당조직들을 발동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을 앞세워 훌륭히 완성하였습니다.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 도 선전선전수단과 력량을 집중하여 정치선전, 경제선전을 드세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수도의 모든 사업이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의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로 당사상사업을 지향시키고 일심단결을

시민들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뜨거운 지성을 바치는 속에서 우리는 수도의 중심부에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위대한대원수님들의 도의상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 당의 충직한 붓대전우가 되어 새로운 신문혁명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나가겠다

로동신문사 론설원 송미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마중해가는 길에서 열면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당보문필가들의 일무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그 어느때보다 심중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면서 당보신문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어 《로동신문》을 당사상전선의 맨 앞장에 세워 주시었습니다.

아버이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무한히 고무되어 당보의 문필진사들은 힘있고 당백년치사실공포에 온 사회의 사상적일쇄화를 힘있게 추동하고 혁명의 북소리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당보가 주체의 대, 자주의 대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글들을 내는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로서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는 것입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보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성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고 만사물의 실상을 격조있게 악보와 가사들이 새로운 편법으로 개제되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 상상할수 없었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보가 주체의 대, 자주의 대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글들을 내는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로서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는 것입니다.

당보가 주체의 대, 자주의 대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글들을 내는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로서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는 것입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힘있게 벌려 수령결사옹위의 성령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이바지하겠다

륙해운성 당위원회 책임비서 천광식

우리 륜해운성 당위원회는 조국을 떠나 항쟁하는 무적전사들의 특성에 맞게 위대성교양,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선원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당사상사업의 주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들을 놓고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토로하면서

그들모두는 조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시간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모셔주기 바란다.》라는 《대각봉》의 마지막 전문만이 조국에 도착하고 선원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을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선인답게 살며 일해나갈 뿐하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나날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전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당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당보의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우리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영원한 시대정신으로 안고 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리정남동무가 사업하는 종합식료 가공공장 초급부서 김택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우리 공장을 찾으신어 공장의 곳곳에 흠뻑이셨는 아버지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안겨오고 하시면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군인들과 함께 사회주의호조선의 전초기에 서겠다는 것을 수호명심하여야 한다는 뜻있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짧은 기간에 평양시당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정책을 철저히 다져나갔습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데서 주체미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만수대창작사 단장 김호성

우리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기간 많은 단위에 배두산전세위인들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대오로 높이 받들어오시는 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6. 15의 흐름을 즐기치게 이어나가야 한다

열렬한 애국애족의 일념과 빛나는 예지가 비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의 호소에 화답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이 발표된 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의 기대와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과 군사적대행위들을 전면중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제안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긴급한 현안문제들이다. 그것은 진실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자주통일의 의지만 있다면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며 이미 6. 15 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과정에 북과 남이 합의의 본 문제들이다. 결국 현 북남관계개선은 6. 15 공동선언에 대한 태도와 리행의지에 달려 있다.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세상에 발표된 공동의 통일강령인만큼 모든 문제는 그에 대한 신의에 달려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외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북남관계개선을 풀어나가는데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을 풀어나가는데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을 풀어나가는데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이다. 북남관계개선을 풀어나가는데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이다.

귀중한 것이다. 그것을 살려나가지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내세우고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모든 문제를 통일적 방향으로 풀어나가던 자세를 이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이 리행되던 날에는 북남관계문제를 가지고 흥청하거나 민족내부문제에 의세를 끌어들이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민족의 역사와 명토문제를 비롯한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해나감으로써 외세의 간섭과 민족적리익침해행위는 배격되었다. 6. 15 통일시대에 차근차근 민족공동의 리익을 지키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 유감없이 살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고귀하고 신성한 리익을 지키고 그것을 반대로 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번에 호상간의 비방증상과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포함한 최전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제안하고 실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기로 한데는 6. 15 통일시대를 계속해나가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어떻게 하나 동족간의 대결을 금지하고 비정상적인 북남관계에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념에 기초하여 바로잡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기어올려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단정하고 북남관계의 통일과 평화면역으로 이어갈것이라는것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6. 15 통일시대에 배두산과 제주도, 평양과 서울을 오가고 금강산을 유람하며 해내의 명승과 통일민생을 부르며 울고 웃던 그때를 몸서 그리워하면서 그러한 시기가 다시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현 북남관계는 이러한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서 고쳐야 한다. 나라의 분열로 인한 거리의 고통을 한시바삐 덜어주고

긴장격화를 노린 불장난소동

내외호전세력의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전횡과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미국과 남조선군사연습이후 최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을 벌이며 하면서 그 목적이 《북공군사태》에 대비하여 《북의 핵실험장과 평양전력》에 있다는것을 내놓고 떠들고있다.

미국이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조전평화를 이룬 후엔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제재하려는 위협적인 전횡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방어》의 외피를 씌우는것이야말로 실로 과격치한것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횡위기를 고취하는것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지금껏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체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다. 하지만 내외호전평화를 우리의 평화수호의지를 오만하고 선봉질을 해댄다면 민족의 안전과 존엄을 결코 단호히 대응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내외호전평화의 북침전행태를 저지하고반대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것이다.

라 설 하

관계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행사

금강산은 그뿐만도 관광 명소로 간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 이름없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선조들의 자랑과 궁극자 집념의 말이다.

이런 금강산에 많은 눈이 내렸다. 백설을 띤 금강산의 1만 2000봉우리의 경치는 또 얼마나 장관인가.

하나 오늘 금강산은 그 절승 경관만이 아닌 새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이 강토에 통일을 부르며 북과 남의 혈육의 정이 뜨겁게 합쳐지는 곳으로서 금강산의 이름 더 중요로 떠오르고있다.

지금 금강산에서는 봄이다. 계곡마다 두렵게 내려앉은 장설을 후려낸 혈육의 정으로 녹이던 북과 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한꺼번에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금강산으로 온 겨레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 15 공동선언발표 후 거의 10년간 해마다 수개월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열리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파란곡절을 딛고 그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절감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민족의 파는 뜨겁고 진하며 북과 남에는 절없는 필수는 단일민족, 갈라져 살아가 살수 없는 혈육들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70년대에 달하는 분열사는 반민족을 면치 못한 이어은 단일민족의 역사에 비길 수 없으며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어온 우리 겨레의 민족적공통성보다 결코 클수 없다. 하기에 온 겨레는 오늘의 성과가 북남관계개선의 충실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북과 남사이에서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서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전민적 회화,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막을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민족의 요구이다. 하기에 남조선 통일연구원의

북남관계전문가들까지도 지난 북남고위급회담과 그를 통한 합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남북이 합의한 합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남북이 합의한 합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흩어진 가족들이 자주 만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민적 남조선인민들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6. 15 공동선언발표 후 10년동안 매해 수개월에 한번씩 효과적일 열리며 북과 남의 갈라진 부모형제들의 피와 정, 민족의 넋을 이어왔는데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편협한 사고와 폭력에 의한 동족사이의 대결이 4년동안이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열리지 못하게 한 근본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의 호풍을 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를 보다 탄탄히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될수 있다는것을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오늘 금강산으로 열린 민족의 기대와 성망의 눈길은 머지않아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호 진

민영화시도중단과 특검도입을 요구

《새누리당》의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 없듯이 진실은 탐탁치기마련이라고 하면서 특검도입이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공을 수호조련병, 보건의료로조를 비롯한 단체 위원장들은 당국의 민영화정책을 비난하면서 사각계층이 총파업투쟁에 함께 할것을 호소하였다.

민영화시도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는 민중의 뜻을 거역하는 민영화정책을 당장 걸어서 없애달라 하였다.

한편 지난 19일 남조선의 민중들과 장애인들은 로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총파업투쟁에 발을 맞추어 연대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민영화방식천편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북지》를 공약하였지만 결국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면서 전제 민권이 힘을 모아 투쟁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현 《정부》가 북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리용당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같은 각계층 단체들이 북의 제안을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실에 맞게 당국이 결정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어야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흥을 구형하게 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보인별 폐지투쟁》, 《내란음모작이다》 등의 글이 씌어진 구조판들을 들고 양당에 대한 탄압책 등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드러나자 위기에 처해 벗어나려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고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정당으로 몰아대며 검찰과 합세하여 조작, 위복된 증거를 조작하여 정지인들에게 중대 불이익을 주었다. 지역나라들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밀지하면서 차베스의 정책을 지지하여나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좌익정권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미국을 배제한 대륙의 통합력을 높여나갔다. 이에 반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저들의 지배전략에 도전하여나간다고 보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정변을 막아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주요경제부문을 국유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공고히 하였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던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남조선에서 조류독감 계속 발생

15일 남조선 《MBC》방송에 따르면 남조선에서 조류독감이 계속 발생하고있다.

남조선강원도 원주읍내에서 칠새들이 특이행동에 감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과 청양의 농가들에서 닭과 닭들에게서도 비루스가 발견되었다.

건물붕괴 사고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17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의 한 건물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제 22 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

【초지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 로씨야의 초지에서 개막된 제22 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가 23일 폐막되었다.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원 로씨야연방 대통령과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피슈트 올림픽경기장에서 진행된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대회폐막을 선언하였다.

이여 올림픽봉화가 꺼지고 축포가 울렸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로씨야가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를 쟁취하고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년중 에이즈비루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는 2012년 현재 8 000명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19일 유엔에이즈판권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모락의 왕초가 받은 응당한 대접

얼마전 베네수엘라대통령이 TV방송연설에서 자국주제 미국대사관 직원 3명이 반정부세력 가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음모를 꾸민 사실은 폭로하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조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한것으로서 국내인민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사회화 대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근거가 없다느니, 잘못되었거니와니 뭐니 하며 불분한 소리를 해대고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정부가 반정부세력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며 로물적인 내정간섭을 하고있다.

물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시기에 미국은 외교관의 탐을 쓴 첩자들을 들이밀어 정탐활동을 벌였으며 반정부세력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정치적불안정을 조성하려고 책동하여왔다. 그때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정부의 응당한 반격을 받았다.

미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베네수엘라정부에 잘못이 있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반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고 압박적인,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베네수엘라정부에 잘못이 있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반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고 압박적인,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베네수엘라정부에 잘못이 있는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반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고 압박적인,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레 소 토 에서 교육 사업